

3대가 같이 잘 사는 '청년 특별도'

민주 김윤덕 의원, 전북 대전환 일환으로 추진 "이재명, 청년 주거문제·일자리 창출 등 선행 입장"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시 갑) 국회의원은 14일 전북 대전환의 일환으로 3대가 같이 사는 전북 청년 특별도 만들기에 나섰다.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전북 대전환을 위한 전북 청년 특별도 만들기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전북 청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주거 문제, 청

년 일자리 창출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전북에 맞게 실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년 6,000여명의 전북 청년이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나는 것은 지방의 열악한 청년주거, 취업 문제를 위한 전북 청년 특별도 만들고 진단했다.

전북 청년은 2020년 7,252명이 수도권 등으로 떠나는 등 최근 5년 동안 매년 6천여 명이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



김 의원은 '청년특별도 전북! 청춘 114 프로젝트'를 캐치프레이즈로 청년전북의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기존 중앙정부와 연관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확대 발전시키고, 전북 특화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 수도권비 예산 4배 증액, 청년 총 예산 6,000억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청년이 1순위로 꼽는 주거문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4

개 부문에 걸쳐 새로운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실행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인구청년지위다"를 신설하고,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시·군별 청년 의견이 곧바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 대전환을 위해서는 3대가 같이 사는 전북을 실현하고, 그 중심에는 지역 청년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며 "청년 정책하면 전북이라는 청년 1번지 전북, 청년 특별도 전북 만들기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상임위, 올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수소차 충전 도민 불편함 최소화해야"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4일 제387회 임시회 기간 전북도 혁신성장사업국,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예코융합사업연구원 대한 2022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농산경위위원회는 2021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2022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은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 "전북도가 수소를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만큼 미설치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소차를 구입해 놓고 타지역으로 충전하러 가는 도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은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보고 시 행정에서 인센티브 등 잘 받은 성과평가들은 칭찬할 만한 점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에서 잘 받은 평가가 단절되지 않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기를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은 서남권해상풍력 관련해 "서남권지역과 부안 고창 부근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서 하되 전북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운영해야"

환경복지위원회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여성보건의료 등 전반에 대해 소관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명연 위원장(전주)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양분돼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다"며 통합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을 묻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성평등센터 운영과 관련해 "시·도별 운영현황 및 전북도에서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는 이유 및 2021년 전국적으로 선정이

1군에 되었는데 전북이 선정된 이유 및 선정장소에 대한 복지여성국장의 의견을 물었다.

황형석 의원(김제)은 "노인대학 대응방안 등 노인관련 기관 등의 교육을 철저한 진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추경상당집행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복지에 대해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이 타고 다니는 점동휠체어 구입시 지원금액 및 수리비용 등도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 묻고, '전진 후진시 소리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 보행자의 접촉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연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 실시여부 검토"

행정자치위원회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기획조정실 등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은 "타 시·도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도 출연기관 의 성격과 예산 집행 규모를 고려

할 때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연임하는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여부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재 부위원장(전주)은 "전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미투 조성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소상공인과 가계경제의 핵심인 신년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충분히 검토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미디어 시민단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진)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병도 의원(전주)은 "전북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청자 권익 향상을 위해 건립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부처나 도 중 심이 아닌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회 등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강화할 공요력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정진 위원장(남원)은 도 문화유산 분야 화제적 현황에 대해 질 의하며, "문화유산 분야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고장 전북 타이틀에 맞게 학예자에게 일정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팀장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제로 인해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 등

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체육회 내부 갑질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며 "제대로 진 상을 밝혀 이를 개선하고, 민선 체육회장 체제에서 체육회 내용이 깊 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진 위원장(남원)은 도 문화유산 분야 화제적 현황에 대해 질 의하며, "문화유산 분야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고장 전북 타이틀에 맞게 학예자에게 일정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팀장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제로 인해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 등

/유호상 기자

전북선관위, 내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왔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월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유호상 기자

6·1 지방선거 "저도 축하합니다"

"세계적인 농촌관광도시 조성"

권대영 전 식품연구원장, 순창군수 출마 선언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63)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63)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권 전 원장은 14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소멸할 수 있는 순창은 위기 상황이다"며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순창군수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순창을 다녀가지만 머무름이 없고 즐기는 것이 없는 관광으로 모두 지나가는 관광이 되고 있다"면서 "음식과 숙박, 즐길 수 있는 자원

을 만들고, 농축산물과 식품, 술과 장류의 세계적인 브랜드 제고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의 능력과 경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을 비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군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권 전 원장은 ▲세계적인 농촌관광도시 조성, ▲세계 전통 발효음식 문화농촌도시 조성, ▲순창 브랜드 창출과 육성,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 군민의 자존심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



지난 13일 정읍 2030 지지자 모임 420명과 정읍지역 선대위 청년본부 450명 등 청년 1천여명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 사무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위기에 강한 지도자 필요"

김제·정읍·고창 청년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전북도 김제시 청년단체 7개소김제 청년 경제연구소 청년 동행 농촌을 보고 배우다, 생생 동아리, 김제시 청년 경제인 연합회, 스마트팜 대표는 14일 김제시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농촌을 보고 배우다 김기현 대표 외 6개소 청년 단체장은 기자회견에서 "고령화와 인구유탈 문제가 심각한 김제시에 청년들 유입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 청년세대 감소를 막아내기 위해 교육문제와 안정적인 일자리,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선후보들은 지역사회 청년지원정책, 고용 위기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김제시와 청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약을 지키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우리의 존재가 달린 김제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전북 정읍·고창 청년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앞장섰다.

정읍 2030 지지자 모임(본부장 이현호) 420명과 정읍지역 선대위 청년본부(본부장 최도식) 450명 등 청년 1천여명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 사무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정읍 청년들은 "지도자의 무능과 정치적 보복, 세대간의 갈등, 유류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죄악"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통합 대통령,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8000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80% 이상의 투표율 달성하기 위해 8000세대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80·90년대 출생인 2030세대 청년들의 투표 참여와 지지가 긴요하다고 판단,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특히, "김제시와 청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약을 지키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우리의 존재가 달린 김제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전북 정읍·고창 청년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앞장섰다.

정읍 2030 지지자 모임(본부장 이현호) 420명과 정읍지역 선대위 청년본부(본부장 최도식) 450명 등 청년 1천여명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 사무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정읍 청년들은 "지도자의 무능과 정치적 보복, 세대간의 갈등, 유류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죄악"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통합 대통령,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8000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80% 이상의 투표율 달성하기 위해 8000세대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80·90년대 출생인 2030세대 청년들의 투표 참여와 지지가 긴요하다고 판단,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유호상 기자

"고질적 사회 문제 해결할 책임자"

영호남 변호사 500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영·호남 지역에서 주민 안전과 인권 활동가인 변호사 500명이 1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전환기를 맞아 G5로 도약하느냐 30년을 뒷걸음친 제2의 일본으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전환적 공정 성장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미래의 지도자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1,800만 영·호남 시·도민들에게 절박한 역사적 시기를 헤쳐나갈 지도자로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선언에 참여한 500명의 변호사 중 134명은 전북지역 변호사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전북을 대표해 김영복 변호사(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임), 전남·광주를 대표해서 강행욱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임), 부산을 대표해서 김경지 변호사, 대구를 대표해서 김무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유호상 기자



국민의힘이 전북 출신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과 하종대 전 체널A 국장을 영입했다. 정운천 의원이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영입인사들과 함께 만찬을 외치고 있다.

국힘, 양정무·하종대 전북선대위 위원장으로 합류

국민의힘이 전북 출신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과 하종대 전 체널A 국장을 영입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과 하종대 전 체널A 국장을 모셔왔다"며 "이번 대선에서 양 회장은 중앙선대위 역사문화 특보단장 겸 전북 선대위 상임선대위위원장을 하 전 국장은 중앙선대위 상임 언론특보 겸 전북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맡는다"고 밝혔다.

양정무 회장은 국내 최초로 골프채 국산화를 이룩한 기업인으로 지난 2019년부터 재경순창군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하종대 전 국장은 동아일보 사회부장 겸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으로 체널A에서 양커와 패널리 이름을 알렸다.

한편, 이날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전라북도 8대 공약'에 대해 실천력과 함께 제도와 시스템을 영입했다.

8대 공약에는 ▲새민금 메가시티 조성 등 새로운 새민금 공약, ▲전북 금융중심지구 지정, ▲신산업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한민국 동서횡단축 건설, ▲친환경·미래형 상용차 생산단지와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 농생명산업 허브 육성,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동부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정운천 위원장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 일당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풀러가는 쌍발동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30% 득표율을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